

〈研究論文〉

## 形容詞「착하다」の用法記述の試み 一人の性格や言動を肯定的に評価する意味に限定して一

亀 井 みどり

### 【要旨】

本稿は、韓国語学習者のための形容詞研究の一環として、人の性格や言動を肯定的に評価する意味を表す形容詞「착하다」を対象に用例分析を行い、その結果を基に、既存の韓日辞典や学習教材の解説を補い得る用法の記述を試みたものである。ニュース記事検索サイト「빅카인즈 (BIG KINDS)」を通して得た用例を分析した結果、「착하다」は、「相手を配慮した言動が取れる人」、「奉仕活動や寄付など善い行いをする人」、「言うことをよく聞く（主に目下・年下の）人」を肯定的に評価する（直・間接的に褒める）場面で用いられていることがわかった。また、これらの人の言動に感心したり満足したりした場面で、感嘆詞的に用いられる例もあった。さらに、この性格を連想させる視覚的・聴覚的な印象について述べる場面でも用いられていることがわかった。加えて、「착하다」と褒められる人は、「천사（天使）」に比喩される傾向があることを見い出すことができた。以上の分析結果を基に、既存の解説を補う一案として、今後、学習者向けの辞典や教材に加えられるべき情報を提示した。

キーワード：韓国語学習、語彙習得、辞書、用例、場面

### 1. はじめに

本稿の目的は、人<sup>1</sup>の性格や言動を肯定的に評価する際に用いられる<sup>2</sup>形容詞「착하다」を対象に、用例分析を通して使用様相を考察し、既存の韓日辞典や学習教材における「착하다」の解説を補い得る、具体的な用法の記述を試みることにある。

「착하다」は、日常生活での使用頻度が比較的高く、韓国語能力試験（TOPIK）の初級語彙として選定されている<sup>3</sup>形容詞である。しかし、学習者が参考にする韓日辞典などには「(心根・行いが) 正しくてよい、善良だ、よい、おとなしい、優しい」など複数の異なる訳語<sup>4</sup>に加え、少数の例文しか示されていないため、正確な意味・用法を理解しにくいということが問題点として挙げられる。

これまでの「착하다」に関する研究を見ると、多義語としての「착하다」に注目した研究が活発かつ持続的に行われてきた。김철규 (2012)、임지룡 (2014)、전부미 (2014)、천혜정 (2019)

などでは、「착하다」の意味拡張の様相を通時的または共時的に考察している。また、XIA WAN (2022) では、「착하다」の基本意味と派生意義を整理した上で、中国語を母語とする学習者に「착하다」の意味をどのような順で教育するかについて研究を行っている。これらの研究を通し、「착하다」は、主体が「人」から「動物」、「植物」、「無生物」へと広がっており、その意味も、「人の性格や行動に対する肯定的な評価」という意味から、「善行的」、「倫理的」、「学習者中心的」、「親健康的」、「親環境的」、「優越的」、「経済的」、「美的」へと広がり、さらには、「没個性的」のような「否定的な評価」としての意味も確認されるなど、その多義的な様相が明らかにされてきた。しかし、これらの研究では、「착하다」の意味拡張の様相とその背景を明らかにすること、多義語の効果的な教育順序という点に重きが置かれているため、「착하다」の中核にある意味、つまり、人の性格や言動に対する肯定的な評価を表す際の使用様相については十分に示されていない。

「착하다」が人の性格や言動に対する肯定的な評価を表す際の用法や類義語との使い分けについて研究したものとしては、河村光雅・金京子 (2017)、계효하 (2019)、김자영 (2019)、김민정 (2020) などが挙げられる。河村光雅・金京子 (2017: 212-213) では、「상냥하다, 착하다, 친절하다, 부드럽다」の使い分けを説明する中で、「子どもについて」述べる時は「착하다 (気立てがやさしい)」を使うと記述している<sup>5</sup>。一方、계효하 (2019: 223) では、「착하다」と共起する語を分析した結果、[+女性]と[+男性]の意味資質を持つ語が多様に共起しており、老若男女、区分なく広い範囲で使用されると述べている。김자영 (2019: 78-80) では、「착하다」と「상냥하다」の使い分けについて用例を分析した結果、「상냥하다」は主に女性の性格を表す際に用いられるのに対し、「착하다」は幅広い主体の性格を表す際に表れたと述べている<sup>6</sup>。また、김민정 (2020: 18-21) では、「선량 (善良)」という意味素でまとめた「착하다, 굽다, 순하다, 선량하다」の共起関係について用例分析の結果を示している<sup>7</sup>。これらの研究では、「착하다」と被修飾語の共起関係を量的に分析し、類義語の使い分けを考察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るため、「착하다」がどのように使用されるのかについては、具体的に示されていない。

以上のように、「착하다」に関する研究は活発に行われてきたが、その用法を詳しく記述した研究は少ない。しかしながら、学習者が「착하다」の意味・用法を正確に理解し、実際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場面で使えるようになるためには、現状の辞書の語義と訳語、例文だけでは不十分であると考えられる。そこで本稿では、「착하다」の用法記述の試みの第一歩として、「착하다」の中核にある意味、つまり、人の性格や言動を肯定的に評価する意味に限定し、用例を収集し、誰が、誰に対し、どのような場面で用いているのかが明らかなるものを中心に分析・考察を行い、韓国語学習者が「착하다」の意味・用法を理解する上で一助となる記述を目指したい。

## 2. 「착하다」が用いられる場面

本稿では、「착하다」の用例を収集するために、ニュース記事検索サイト「빅카인즈 (BIG

KINDS)」を利用した<sup>8</sup>。「착하다」は様々な形で用いられるが、体言を修飾する冠形詞形「착한」の形で検索すると、派生意味の用例が多数含まれてしまうため、便宜上、検索語を叙述形の「착하다 OR 착해 OR 착합니다」に絞り、期間は最近の約3年間（2019年1月1日から2022年8月31日）とした。その結果、検索された記事は2,422件であった。そのうち、「착하다」が人の性格や言動を肯定的に評価する意味で用いられているものを対象にし、さらに、誰が、誰に対し、どのような場面で使用しているのかが明らかなものに限って分析を行った。分析の結果、「착하다」は、大きく「主体の言動を間接的に褒める場面」での使用と「主体の言動を直接的に褒める場面」での使用に分けることができた。また、肯定的な評価とは言いきれないものの、「착하다」という性格を連想させる視覚的・聴覚的な印象について述べる場面」での使用も確認した。以下で、それぞれの具体的な用例を見ていくことにする。

## 2.1 主体の言動を間接的に褒める場面

「착하다」は、主体の言動を間接的に褒める場面で用いられる用例が最も多く、どのような主体を褒めるのかを基準にして、「相手を配慮した言動が取れる人」、「奉仕活動や寄付など善い行いをする人」、「言うことをよく聞く（主に目下・年下の）人」の下位カテゴリーに分けることができた。

### 2.1.1 「相手を配慮した言動が取れる人」を褒める場面

「착하다」は、発話者が「相手を配慮した言動が取れる人」のことを褒めながら、第三者に語る場面で用いられていた。

以下の用例（1）では、コロナ陽性判定を受けた女性歌手が、自分のせいで濃厚接触者となってしまったにも関わらず、自分を心配してくれた友人たちのことを「착하다」と述べている。（2）は、女性歌手が、弟たちにお小遣いをあげようとしても、姉である自分に気を遣わせないように「お金はある」と言い、「心配しないで、おいしいものを食べて」と返事をする弟たちについて「착하다」と述べている。（3）では、女性芸能人がサッカーチームを作り訓練を行う番組の企画に、途中から参加した一人が感想を述べている場面である。他のメンバーたちがよく面倒を見てくれ配慮してくれたのですぐに適応することができたと話し、メンバーたちについて「착하다」と述べている。（4）では、高校の相談室に常駐し自習のサポートをする講師が生徒たちに対して「착하다」を用いた例である。先生の忙しさを気遣う生徒たちは、質問したいことを全て質問せず、相談室の自分のところに来て質問するというエピソードを紹介しながら、生徒たちのことを「착하다」と述べている。（5）では、夫婦喧嘩になりそうな時は夫が謝るので、これまで大きな喧嘩をしたことがないと明かした女優が、夫について「착하다」と述べている。

(1) ‘라디오쇼’ 청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 당시를 회상했다. (中略) 갑자기 회사에서 전화

가 오더니 ‘괜찮냐’ 하더라. ‘괜찮다. 음성이라고 전달 받았는데 아니냐’ 라고 했더니 아니라더라” 고 말했다. (中略) 우선 내가 만났던 친구들한테 연락했다. ‘애들아, 일어나. 지금 미안해. 너무 미안한데 너네도 봐야할 것 같다’고 했다. 너무 고맙게도 같이 기사가 난 친구들인데 ‘언니, 괜찮아’가 먼저였다. 너무 **착하다**” 라고 덧붙였다. (매일경제, 2022.02.22)

(2) 선미는 이날 듄직하고 훈훈한 두 남동생에 관한 이야기도 털어냈다. (中略) 선미는 동생들에게 “돈 좀 있니?” 하고 쓸 용돈이 있는지 자주 묻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생들은 분명히 돈이 부족할 텐데 너무 기특하게 ‘아니야 누나, 나 돈 있어. 걱정하지 말고 누나 맛있는 거 먹어’ 라고 한다” 며 “저는 동생들에게 용돈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애들이 **착하다**” 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2021.10.11)

(3) FC 구척장신 차서린 “맑고 착한 멤버들 덕 빠르게 적응” (中略) SBS 예능 ‘골 때리는 그녀들’ 이 지금의 인기를 구가하는 것은 역시 여성 연예인들이 진지하게 축구를 대하고 꾸준한 연습으로 성장사를 써내려갔기 때문이다. (中略) 멤버들이 하나 같이 맑고 **착하다**. 내게 먼저 다가와 주고 잘 챙겨줘서 너무 편하게 팀 훈련을 할 수 있었다. 배려도 많이 해줘서 쉽게 잘 적응했다. 짧은 시간에 빨리 친해졌다. (YTN, 2022.01.19)

(4) 화천군은 간동고 학생들의 학습을 돕기 위해 학교에 자기주도학습 강사 2명 (수학, 영어) 을 지원하고 있다. 춘천에 사는 수학 강사 출신 이지용씨 (47) 는 매일 오후 6 시부터 10시 반까지 간동고 상담실에 상주하며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을 돕는다. “다들 공부하려는 의지도 있고 목표도 있는 아이들에게요. 애들이 다들 **착해서** 학교 선생님께 10개 물어볼 거 바쁘실까봐 다 묻지도 못하고 고민하다가 저한테 와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경향신문, 2022.02.10)

(5) 이정현은 “싸우려고 하면 남편이 다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며 “그게 안 되면 싸움이 커지는데 아직까진 커지지 않았다, 내가 화 내려고 하면 남편이 너무 **착해서**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한다” 고 고백했다. (서울신문, 2022.08.24)

## 2. 1. 2 「奉仕活動や寄付など善い行いをする人」を褒める場面

また、「착하다」は、発話者が「奉仕活動や寄付など善い行いをする人」を間接的に褒める場面で用いられていた。

以下の用例 (6) では、手術の際に保険金がもらえたので、そのお金を自身のために使わず、こどもの日に児童養護施設にピザの差し入れをしたという内容をオンラインコミュニティに掲載したところ、それを見たユーザーから「마음이 (心が)」 「착하다」というコメントが寄せら

れている。(7)では、3人の兄妹が自分たちのお小遣いを貯め、低所得の一人暮らしの高齢者のために寒い冬に使う練炭を寄託し、直接家まで届けたという報道の中で、練炭を受け取った後、取材に応じたおばあさんが、兄妹たちのことを「착하다」と述べている。(8)では、アイドルグループのメンバーの一人がある施設でボランティアとして働いたことが報道され、施設の職員がメディアの取材に応じたもので、彼は開園したばかりの施設を手伝うだけでなく、まだ準備できていなかった車を寄贈してくれたというエピソードを紹介し、「사람이 (人が)」「착하다」と述べている。

(6) 어린이날을 기념해 수술 보험금으로 보육원에 피자를 기부했다는 글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주목받고 있다. 해당 글 작성자는 지난 1일 피자 30상자와 파스타 10개, 콜라 90개, 보리차 음료 1상자, 쿠키 70개를 집 근처 보육원에 전달했다. (中略) 작성자는 글에서 “평소 기부를 자주하던 성격이 아닌데 치킨 기부하는 글을 보고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바로 보육원 연락해서 진행했다”라며 (中略) “나처럼 한 명이라도 기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글을 올린다”라며 “계획은 없지만 주기적으로 (기부) 할 생각도 있다”라고도 했다. (中略) 누리꾼은 댓글로 “진심으로 존경한다”, “진짜 이런 사람 본받아야 한다”, “나도 기부하면서 살겠다”, “그 돈이면 자기만족을 위해 써도 충분할 텐데 마음이 너무 착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작성자의 선행을 칭찬했다. (매일경제, 2022.05.03)

(7) 강석주·해준·울이 학생은 지난 12일 사직 2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손수 모은 용돈으로 직접 구매한 연탄 150장을 기탁하고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 가정에 전달했다. (中略) 또 기탁된 연탄을 겨울 한파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서만 생활하는 독거노인 가정에 한 장 한 장 손수 정성껏 날랐다. 이 삼남매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모은 용돈 저금통을 사직 2 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해 저소득 가구에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등 총 10회에 걸쳐 선행을 이어오고 있다. 연탄을 지원 받은 할머니는 “추워지는 겨울에 연탄을 아껴 쓰며 걱정이 앞섰는데 아이들이 집을 방문해 연탄까지 전달해주어 참 따뜻한 겨울이 될 것 같다”며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착하다”고 말했다. (중부매일, 2020.12.14)

(8) 2PM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 중인 이준호 (사진) 의 또 다른 선행이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中略) 그는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건 기본이고 사람이 너무 착하다. 센터가 개원한지 얼마 안돼 차가 없었는데 이동할 때 필요할 것 같다고 스타렉스도 기증해줬다”며 “휴가도 많이 안 나가고 뛰어다니며 일했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세계일보, 2022.04.22)

### 2. 1. 3 「言うことをよく聞く (主に目下・年下の) 人」を褒める場面

また、「착하다」は、発話者が「言うことをよく聞く (主に目下・年下の) 人」を間接的に褒める場面でも用いられていた。以下の用例 (9) では、野球選手が最も愛情を持っている後

輩は誰かと尋ねられ、後輩たちは、みな「착하다」と述べ、「言うことをよく聞く」と説明している。(10) では、コロナで生活が困窮しているひとり親の家庭の状況を報じた記事の中で、そのような中でも子どもが駄々をこねないので幸いだという文脈で、子どものことを「착하다」と記述している。

(9) 롯데 선배 중에 가장 존경하는 선배? 제일 애정이 가는 후배는 누구인가? (中略) 후배들은 전부 다 착하다. 말 잘 듣고. 굳이 한 명을 꼽을 순 없다. 주장이라서 또 한 명을 꼽으면 안 될 것 같다. 모든 후배들이 열심히 해주고 있어서 다 이쁜 것 같다.” (부산일보사, 2021.04.13)

(10) 한부모가정 3 가구는 재개발지역 빌라 한곳에 모여 산다. 다른 이웃들은 대부분 이사를 나가 주변은 행하다. “집 대로변으로 도로가 보이는데 맨날 앰블런스가 오가는 소리가 들려요. 숨이 턱턱 막히고 고립된 느낌이에요.” 아이가 착해 투정부리지 않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中略) 혼자 일하고 아이도 돌보며 간신히 가정을 꾸려나가던 이들에게 코로나19가 더 위협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민일보, 2020.03.10)

## 2. 2 主体の言動を直接的に褒める場面

ここまで見てきた「착하다」は、発話者が、主体の性格や言動について「間接的に褒める」場面での使用であった。ここでは、発話者が、主体を「直接的に褒める」場面、または、その言動に感心したり、満足したりして、感嘆詞的に用いられている例を見ていきたい。

以下の用例 (11) では、横断歩道で廃紙回収のおじさんを助ける小学生たちの善行が紹介され、それを見たネットユーザーが「아이고」という感嘆詞とともに「착하다」という反応を見せたと書かれている。(12) では、生まれてくる子どもの部屋をどこにするか話し合う夫婦の会話の中で、妻の仕事部屋は取っておくべきだと配慮ある発言をした夫に対し、妻は、嬉しそうに「아이고」という感嘆詞とともに「착하다」と言っている。(13) では、先輩後輩の間柄であるタレントと番組PDが、慈善団体にイベント収益を寄付しに行くことになり、切りの良い金額にするために自らお金を足すと申し出た先輩に当たるタレントが、番組PDにも寄付を誘い、最終的に寄付すると答えた番組PDに対して、「착하다」と発言している<sup>9</sup>。また、(14) は、主体が人ではないが、保護された絶滅危機種のキツネに餌を与えている場面で、キツネがよく食べる姿を見ながら、「착하다」と声を掛けている<sup>10</sup>。

(11) 인천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횡단보도에서 폐지를 쏟은 할아버지를 도운 선행이 알려져 어른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中略) 작성자는 “폐지 줍는 할아버지의 오토바이에서 폐지가 도로 밖으로 떨어지자 마치 자기 일인 양 도와드리는 초등학교들 정말 훌륭하고 칭찬한다” 며 “특히 갑자기 인도에서 달려 나와 도로에서 같이 주워드리는 파

란 가방 멘 남학생은 정말 대견하다” 고 말했다. 네티즌들도 학생들의 선행을 칭찬했다. 이들은 “아이고 **착해라**” “훈훈한 글 보니 좋다” “아이들 훌륭한 사람 될 거다” “부모의 인성까지 느껴지는 예쁜 아이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선일보, 2021.12.06)

(12) 21일 오후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서는 자이언트핑크와 한동훈이 아기방을 꾸미려고 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中略) 자이언트핑크는 “작업실방이 낫지 않겠나” 라고 제안했고, 한동훈은 “아기가 낳아도 (자이언트핑크가) 작업할 때 따로된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짚었다. 이어 “작업실이 따로 있어야, 아기를 낳아도 랩 작업이 더 수월하지 않을까. 아기만 낳고 톡할 수는 없지” 라고 덧붙였고, 자이언트핑크는 흐뭇해하며 “아이고, **착하다**” 라고 답했다. (매일경제, 2022.03.21)

(13) 26일 홍진경은 유튜브 채널에 ‘너무 궁금한 홍진경의 통 큰 기부 금액 (미담, 천국)’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날 문구 세트 판매 수익금 1600만 원을 기부 단체에 전달하러 간 홍진경은 “1600만 원만 드리기에 좀 그렇다. 내가 보태겠다” 며 “더 보태서 힘드신 분들 더 많이 도와드리면 좋으니까” 라고 말했다. (中略) PD가 기부를 약속하자 홍진경은 “**착하다**. 천국 가겠다. 천국 문 앞에서 대문 안 열리는 거 이거 때문에 열릴 수 있다” 고 뿌듯해했다. (세계일보, 2022.03.26)

(14) 부산 해운대 달맞이고개에 멸종위기종인 붉은여우가 나타났습니다. 복원 사업을 통해 소백산에 풀어났던 붉은여우인데, 400km가량을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中略) 현재 캣맘들이 여우를 발견한 뒤로 닭고기 등 먹이를 챙겨주고 있습니다. [캣맘: 아이고 잘 먹네. 우리 아기 **착하다**. 먹고 힘내자. 힘내서 집에 찾아가자.] (SBS, 2022.07.08)

### 2.3 「착하다」という性格を連想させる視覚的・聴覚的な印象について述べる場面

ここまで見てきたものは、主体の性格や言動を肯定的に評価する際の用いられ方であった。一方、「착하다」という性格が、目や表情など外見の印象、つまり視覚的に感じられる場合や、声や話し方の印象、つまり聴覚的に感じられる場合に用いられているものもあった。これらは、性格や言動を褒める場面で用いられた例とは言えないが、肯定的な評価の意味が一部含まれていると見ることもできるため、併せて確認しておきたい。

まず、視覚的な印象から持たれる「悪い」、「強い」、「怖い」などのイメージと、主体の実際の性格が異なることを弁明する場面で用いられていたものである。(15)では、芸能人がお店で働く経験をする番組で、強面の俳優が店に食事をしにきた子どもに話しかけたところ、「怖い」と後ずさりをされたことに当惑し、横にいたもう一人の俳優が、こんな見た目だけれど「착하다」と述べたエピソードを紹介している。(16)では、番組MCが、ゲストの女性歌手について、「強そうに見えるが実は「착하다」と述べている。特に、「생긴 건 이래도 (こんな

見た目だけけれど)」、「사실은 (実は)」などの表現とともに用いられており、外見の印象と実際の性格が異なることが、明確に表わされている。

(15) 7일 방송된 tvN 예능프로그램 ‘어쩌다 사장’ 7 회에서는 윤경호, 신승환, 박효준이 합류한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지역아동센터 직원들이 아이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러 왔다. 한 아이는 “라면 먹을 거냐” 고 묻는 박효준을 보고 “무섭다” 며 뒷걸음질쳤다. 이에 박효준은 “그냥 물어봤을 뿐인데” 라며 당황했고, 신승환은 “우리 생긴 건 이래도 되게 **착하다**” 고 해명했다. (中略) 박효준은 험상궂은 외모와 달리 친절함 서빙으로 손님들을 감동시켰다. (매일경제, 2022.04.07)

(16) 소녀시대 효연이 센 언니 이미지와 달리 순한 모습이 있다고 밝혔다. (中略) 신동엽은 “효연이 센 듯한 느낌인데 사실은 순진하고 **착하다**” 라며 반전 매력이 있다고 말했다. 효연은 “막 까지지는 않은 것 같다” 고 자신을 평했다. 그는 “욕도 거울을 보고 연습한 적이 있다” 라며 매운맛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순하다고 자평했다. (매일경제, 2021.08.02)

逆に、視覚的な印象として「착하다」という性格だと思われがちだが「實際は違う」と述べる場面での使用もあった。用例 (17) は、友達に騙された経験を説明しているもので、「その子は経歴、業務、家族関連のことまで嘘をついていた」と述べ、「見た目には本当に「착하다」のように見えた」と加えている。(18) では、殺人事件の容疑者が13歳の少女だった時にテレビ番組のインタビューを受けていた映像が話題となり、親孝行の純粋な姿を見たネットユーザーが衝撃を受けた様子で、「「착하다」のように見える子が殺人者になるなんて」とコメントを書いている。さらに、発話者自身が、自分は「착하다」というイメージを持たれるが、「實際はそうではない」と述べているものもあった。以下の用例 (19) では、子どものような純粋さを持つ30歳の俳優が、「착하다」というイメージを持たれるが、実際の自分は「착하다」ではないと述べている。

(17) 사실 한 번도 속지 않은 사람은 없다. 어디에나 양치기는 있다. 나 역시 한 친구가 떠론다. 그 아이는 경력·업무부터 가족 관련 일까지 거짓말을 했다. 놀라운 건 겉으로 보기에 정말 **착해 보였**다는 거다. 그래서 더 믿었다. (충청투데이, 2022.01.27)

(18) 경기도 가평 계곡에서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이은혜 (31) 씨의 신원이 공개되면서, 그가 어린 시절 출연했던 방송이 재조명되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中略) 2002년 3월 MBC에서 방영된 예능프로그램 ‘일요일 일요일 밤에-러브하우스’ 에 당시 13살이던 그가 출연한 화면 캡처 이미지가 확산됐다. ‘러브하우스’ 는 방송인 신동엽과 건축



디자이너가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을 찾아 집을 개조해 주거나 선물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여기에 이씨는 인천 연수동의 9평대 집에서 하반신 마비인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소개됐다. 이씨는 보수된 집에 입주해 “오늘처럼 부모님께서 말을 많이 하시고 우시는 모습은 처음이다”라며 “나도 나중에 커서 받은 만큼 다른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고 싶다”고 다짐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고 싶다는 마지막 말과 지금의 상황이 대비돼 충격적이다”, “저렇게 **착해 보이는** 아이가 살인자가 될 줄 몰랐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일신문, 2022.03.30)

(19) 신현수는 올해 서른이 됐지만, 어린이처럼 때문지 않은 순수함을 풍긴다. 착한 이미지가 다양한 배역을 맡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알고보면 안 **착하다**. 다들 촬영할 때 ‘너처럼 착하게 웃으면서 사람 죽이면 진짜 무서울 것’ 이라고 하더라. 언젠가 기회가 되면 악역도 꼭 해보고 싶다. (後略) (뉴시스, 2019.05.16)

また、以下の (20)、(21) は、「착하다」という性格を連想させる聴覚的な印象について述べる場面で用いられたものである。(20) では、歌手が、レコーディングをする際、歌の印象が「착하다」であると指摘され、もっと悪そうな感じで歌ってほしいと指示されたと述べている。また、(21) では、発話者が、お酒に酔って飲食店で暴れる騒ぎを起こしたユーチューバーについて話す中で、普段は「착하다」という印象を与える話し方とよく笑う表情で評価されている人だと述べている。

(20) 그룹 케플러 (Kep1er) 가 ‘4세대 슈퍼 루키’ 다운 강렬한 첫인상을 남겼다. (中略) 타이틀곡 ‘와 다 다 (WA DA DA)’ 는 신나는 빅룸 하우스 장르 기반의 댄스 곡으로, 케플러만의 에너지틱하고 러블리한 매력이 드러난다. 서영은은 “녹음을 하면서 디렉터님이 ‘나쁘게 불러줬으면 좋겠다’ 고 하더라. 난 최대한 나쁘게 불렀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착하다**. 더 나쁘게 해달라’ 고 해주셔서 불태워서 녹음했다” 고 포인트를 꼽기도 했다. (서울경제, 2022.01.03)

(21) 유튜버 정배우가 먹방 유튜버 꽃돼지가 가게에서 난동을 부렸다고 폭로했다. 정배우는 1일 유튜브에 “꽃돼지 가게 사장님께 반말+난동! 경찰한테도 반말?!” 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정배우는 “56만 구독자를 먹방유튜버 꽃돼지가 술 먹다가 또 난동을 부려서 말이 많다” 면서 “부천에 있는 한 초밥집에서 (꽃돼지가) 최소 소주 2병 맥주 2병 이상을 먹었고 술에 취해서 가게 사장님과 출동한 경찰분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사용했다” 고 말했다. (中略) 정배우는 “**착해 보이는** 말투와 생글생글 웃는 선한 표정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유튜버” 라고 꽃돼지를 설명하며 “왜 갑자기 가게 사장님께 왜 화가 난지는 모르겠다. 삼각대를 놓으니까 본 것 같은데 방송 도중 자기를 자꾸 훑쳐본다는 생각이 들

었나보다” 라고 말했다. (매일경제, 2020.12.01)

### 3. 比喩から浮かび上がる「착하다」のイメージ

今回収集した用例を分析したところ、「착하다」の主体の言動を褒める場面で、主体に対して「천사(天使)」という比喩が用いられている例が複数見られた。抜粋していくつかの例を確認しておきたい。

以下の用例(22)では、車道に散らばっている割れた瓶を、通りがかった生徒たちが雨の中、自発的に片付ける映像が公開され、ネットユーザーが生徒たちのことを「착하다」と称賛しているものであるが、この記事のタイトルでは、生徒たちのことを「天使」と表現している。(23)では、番組ゲストとして出演したアイドルが、出演者たちのダンスの実力を評価することになった場面で、上手とは言えない出演者に対しても肯定的な言葉を選び、何とか褒めようとする様子を見た出演者の一人が、感嘆しながら「착하다」と述べ、他の出演者がそれに続けて「天使」だと述べている<sup>11)</sup>。(24)では、ドラマ共演者たちについて、「みな天使のようだ」と話し、その中でも一人の女優について、自分が台本を覚える時に立っているのに座らなかったことや、重い小道具を持つシーンでカットがかかるとすぐに飛んできて手伝ってくれたエピソードなどを紹介し、本当に「착하다」と述べている。(25)でも、共演した俳優について、「天使」と呼んでいると紹介し、本当に「착하다」と述べている。(26)では、キャンプのテント張りに苦戦する父親の姿を見た子どもが、一緒に来たおじさんにこっそり手伝ってほしいと言う姿や、妹弟たちの前での責任感のある姿が公開され、ネットユーザーが「天使のように」「착하다」とコメントしている。

(22) 유리조각 이수라장 비 맞으며 청소한 ‘포항 천사’ 9명, 장학금 받는다 (中略) 도로 위에 떨어져 깨진 술병 조각과 상자를 치워 교통사고를 막아낸 경북 포항 지역 고등학생 9명이 장학금을 받게됐다. 이들은 비가 오던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모여 유리 파편을 주우면서 인터넷 상에서 큰 화제가 됐다. (中略) 네티즌들은 “우리 학생들 너무 착하다. 너무 기특하다. 이런 마음 변치 않길 바란다” “아직 세상은 살아볼만 한 것 같다” “너희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라면서 학생들의 선행을 칭찬했다. (조선일보, 2020.09.18)

(23) 6일 오후 방송된 KBS2 ‘1박 2일 시즌4’에는 태민이 출연했다. 라비와 6년 지기인 태민은 당일 섭외에도 흔쾌히 응했다. 태민은 이날 출연진에게 춤을 가르쳐주기 위해 나섰다. (中略) 출연진이 태민의 앞에서 춤을 선보이자, 태민은 김선호와 연정훈을 칭찬해줬다. 댄스는 태민이 좋은 말만 해주며 멤버들을 격려하자 “진짜 착하다”라며 감탄했다. 감격한 김선호도 “천사다”라며 미소 지었다. (한국일보, 2020.09.06)

(24) 배우 안연홍이 김소연을 칭찬했다. (中略) 허경환은 안연홍에게 “‘펜트하우스 2’의 촬영장 분위기는 어떠냐”고 물었다. 질문을 받은 안연홍은 “정말 좋다. ‘펜트하우스 2’에 나오시는 분들이 다 천사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소연씨가 정말 **착하다**. 난 대본을 외울 때 서 있는 걸 좋아한다. 내가 서 있으니 김소연씨도 앉지 않더라. 또 내가 무거운 소품을 들고 있으면 컷 소리가 나자마자 달려와서 도와준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2021.04.09)

(25) KBS 2TV 수목극 ‘동백꽃 필 무렵’ 향미역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배우로 자리매김을 단단히하게 된 손담비가 같은 드라마에 출연한 텔런트 강하늘을 극찬했다. (中略) 강하늘에 대해 “천사라고 부른다. 정말 괜찮은 친구다. 한 번도 인상 쓰는 것 못 봤다. 예의 바르고 짹짹하고 심성 자체가 **착하다**”면서 “효진 언니랑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만 착한 척하고 본색을 드러내라. 가면을 벗어라’라고 했다. 그만큼 하늘이가 좋아서 많이 괴롭혔다. 너무 **착하다**”고 했다. (세계일보, 2019.11.22)

(26) 5월 26일 방송된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하 ‘슈돌’) 279회는 ‘오늘도 우리는 라라라’라는 부제로 꾸며졌다. 그중 나은이와 라윈이는 아빠와 딸이 바뀐 듯 아빠를 챙기는 모습으로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안겼다. (中略) 나은이는 주호 아빠, 동생 건후와 함께 캠핑을 떠났다. 이 캠핑은 주호 아빠가 아이들을 위해 직접 계획하고 준비한 것. 평소 아이들 앞에서 어설픈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주호 아빠는 이날만큼은 뒤편지 잘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 하지만 혼자서 텐트를 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주호 아빠는 또다시 헤맸고, 이를 본 나은이는 VJ 삼촌에게 가 아빠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아빠가 상처받지 않게 몰래 삼촌을 찾아가는 모습은 모두의 감탄하게 했다. 아빠의 보호와 챙김이 필요하다고만 생각했던 아이들이 반대로 아빠를 챙기는 모습을 보자 언제 이렇게 성장한 것인지 대견하게 느껴졌다. 특히 나은이와 라윈이는 딸로서, 또 누나 혹은 언니로서 책임감 넘치는 모습으로 더 큰 놀라움을 안겨줬다. 이날 방송을 본 시청자들 역시 “아빠와 딸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진짜 기특한 딸들이다”, “뚝뚝하고 야무지다”, “천사같이 **착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경제, 2019.05.27)

以上のように、今回収集した用例の分析を通し、「착하다」が人の性格や言動について肯定的な評価の意味で用いられる際、その主体は、「천사(天使)」に比喩される傾向があることがわかった。これは、母語話者が「착하다」という語に持つ一つのイメージであり、学習者が「착하다」の意味・用法を正確に理解する上で有益な情報だと考える。

#### 4. 「착하다」の用法記述の試み

この章では、既存の韓日辞書や学習教材における「착하다」の記述の特徴と問題点を確認した上で、本稿の分析結果から得られた内容をどのように活用できるかを考えてみたい。ここでは例として、『韓国語－日本語辞典』、『小学館韓日辞典』、『韓国語似ている形容詞・副詞使い分けブック』で提示されている「착하다」の記述を確認することにする。

【表1】『韓国語－日本語辞典』における「착하다」の記述内容

착하다 発音 [차카다] 活用形 착한 [차칸], 착하여 [차카여] (착해 [차케]), 착하니 [차카니], 착합니다. [차카니다] 品詞 「형용사」形容詞 ぜんりょうだ【善良だ】。よい【良い】。やさしい【優しい】 마음씨나 행동 등이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 気立てや行動などが穏やかで正しくて優しい。 착한 사람. 착한 일. 착하게 살다. 착하게 자라다. 마음씨가 착하다. 나는 선한 인상 때문에 항상 착한 역할만을 했는데 가끔은 나쁜 역할도 한번 해 보고 싶다. 나는 좋지 않은 가정 형편 속에서도 착하게 자라 준 우리 아이들이 아주 예쁘고 대견스럽다. 가: 인사 온 며느릿감은 어땠던? 나: 모난 데 없이 마음씨도 착하고 얼굴도 예쁘고 아주 맘에 들어.
---

韓国国立国語院のウェブサイトで公開している『韓国語－日本語辞典』の特徴は、発音、活用形、品詞と語義、例文の構成になっていることである。学習者にとって、語義に日本語訳があるためわかりやすいが、例文として挙げられている「착한 사람. 착한 일. 착하게 살다. 착하게 자라다. 마음씨가 착하다.」などは、文脈が提示されておらず、実際の使い方がわかりにくいという問題が挙げられる。

次に、『小学館韓日辞典』の記述を提示すると、以下の【表2】の通りである。

【表2】『小学館韓日辞典』における「착하다」の記述内容

착-하다 (心根・行いが) 正しくてよい, 善良だ, よい, おとなしい。 착한 마음씨 [행동] よい心根 [行い] / 우리 아기 착하기도 하지. うちの坊やはとてもよい子だよ / 착한 시민으로 표창을 받았다. 善良な市民として表彰された / 집에서는 떠드는 아이지만 유치원에서는 착하게 말을 잘 듣는다고 합니다. 家ではうるさい子だが幼稚園ではおとなしく言うことをよくきくそうです。
---

『小学館韓日辞典』では、複数の訳語と4つの例文が提示されている。限られたスペースの中で、4つの例文のうち、2つの主体が「坊や」、「子」となっていると、主に「子ども」に用いる語という印象を与えかねないという問題点が挙げられる。

最後に、『韓国語似ている形容詞・副詞使い分けブック』の記述は以下【表3】の通りである。

【表3】『韓国語似ている形容詞・副詞使い分けブック』における「착하다」の記述内容

94 やさしい (優しい)

「今度の先生はやさしい先生だといいな」「やさしい性格」「母のやさしい手」のような「やさしい」にもっとも近い韓国語に상냥하다がある。しかし、「親思いのやさしい子」のように子どもについて述べる時は착하다 (気立てがやさしい) を使う。

착하다:やさしい (子) □心のやさしい子です。 마음씨가 착한 아이예요.  
□親思いのやさしい息子でした。 효성이 지극한 착한 아들이었어요.

『韓国語似ている形容詞・副詞使い分けブック』では、日本語の「やさしい」に該当する韓国語として「상냥하다」、「착하다」、「친절하다」、「부드럽다」を挙げ、それぞれの使い分けを説明している。「착하다」については「子どもについて述べる時」に使うという説明と、例文が提示されている。使い分けのポイントに焦点を当てた解説ではあるものの、「子どもについて述べる」用法は、「착하다」の用法の一部でしかないため、補足が必要と言える。

以上のような既存の韓日辞典や学習教材の記述を補足する「착하다」の説明として、本稿では、用例分析を通して得られた結果に基づき、以下のような情報を加えることを提案したい。

「착하다」は、①主に、人の性格やその性格に基づいた言動を肯定的に評価する場面に用いられる。例えば、相手を配慮した言動が取れる人、奉仕活動や寄付など善い行いをする人、言うことをよく聞く（主に目下・年下の）人について、直・間接的に褒める場面で用いられる。また、「착하다」と褒められる人は、「天使」に比喻されることがある。②①の人の言動に感心したり、満足したりするような場面で、感嘆詞的に用いられることがある。③「착하다」という性格を連想させる視覚的・聴覚的な印象について述べる場面で用いられることがある。

## 5. おわりに

本稿では、「착하다」が持つ意味のうち、人の性格や言動を肯定的に評価する意味に絞り、ニュース記事検索サイト「빅카인즈 (BIG KINDS)」を利用して、用例を分析・考察し、既存の韓日辞典や学習教材の解説を補足する案を提示した。用例分析から得られた具体的な情報は、日本語に合致する語が存在しない「착하다」の意味とその用法を、学習者が正しく理解し使用する上で、一定の価値を持つと考える。

ただし、本稿は「착하다」の中核的な意味だけを対象に、限られた用例を分析したため、多義語としての「착하다」の解説には触れ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今後、「착하다」の派生意味

も対象にし、用例の幅を広げ、より一層丁寧な分析を行うことで、学習者にとって、よりわかりやすい記述を模索したい。

## 【注】

- <sup>1</sup> 김은영 (2004: 62-63) では、性格を表す形容詞が動物に用いられる形容詞はごく一部で、動物に用いる場合は、愛犬のように人と近い動物に限られるとして、基本的には [+人性] に用いられると述べている。本稿で収集した「착하다」の用例の中には、主体が「人に近い動物」であるものが数例あったので分析に含めているが、便宜上、「人」という表現を用いることにする。
- <sup>2</sup> 本稿で対象とする「人の性格や言動を肯定的に評価する」意味は、「착하다」の中核となる意味である。これまで「착하다」については意味拡張の研究が行われており、多義語であることが示されてきたため、韓日辞書に多義語としての意味や用法が記載されていないという問題についても論じなければならないが、本稿ではまず、「착하다」の中核となる意味についてのみ、対象とする。
- <sup>3</sup> 한국어능력시험 어휘목록 TOPIK 한국어능력시험 (閲覧日: 2022年11月20日)
- <sup>4</sup> 韓国国立国語院のウェブサイトで公開している『韓国語－日本語辞典 (korean.go.kr)』では、「착하다」を「氣立てや行動などが穏やかで正しくて優しい」と定義し、「善良だ、良い、優しい」という訳語を提示している。(2022年8月31日閲覧) また、『小学館韓日辞典 (2018: 1678)』では「(心根・行いが) 正しくてよい, 善良だ, よい, おとなしい」などの訳語を提示している。
- <sup>5</sup> 河村光雅・金京子 (2017: 212-213) では、「優しい」に相当する韓国語として「상냥하다, 친절하다, 부드럽다」などと併せ「착하다」を挙げ、例として「心のやさしい子です. 마음씨가 착한 아이예요.」「親思いのやさしい息子でした. 효성이 지극한 착한 아들이었어요.」を挙げている。また、「상냥하다, 착하다, 친절하다, 부드럽다」の使い分けについて、子どもについて述べる時は「착하다 (氣立てがやさしい)」を使うと説明している。
- <sup>6</sup> 김자영 (2019) では、韓国語学習者のための性格形容詞の類義語研究の一環として、韓国語教材等から類義語を選択して考察している。「착하다」は「농부, 선비, 할머니, 남편, 마약중독자」など幅広い主体について用いられているが、「상냥하다」については、「언니, 아내, 간호원, 여성」など、主に女性の主体とつながり、「대체로 여성의 말이나 행동, 태도가 부드럽고 친절할 경우에 사용됨 (女性の言葉や行動、態度が柔らかく親切な場合に使用される)」と述べている。
- <sup>7</sup> 김민정 (2020) では、『표준국어대사전』と韓国語教材をもとにポジティブな性格および態度を表す形容詞を抽出し、辞書の意味を基準に、関連する語が共通して持つ意味を代表する単語を「意味素」として計15の分類をした。そのうち、「선량 (善良)」の意味を持つ関連語として「착하다, 굽다, 순하다, 선량하다」を挙げている。
- <sup>8</sup> 韓国言論振興財団 (Korea Press Foundation) が提供するニュースピックデータ分析システムで、1990年から現在まで54メディア約7千万件のニュースコンテンツを無料で検索・閲覧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システムでは、記事全体を閲覧することが可能であるため「착하다」が使用された際

의 전체의 문脈が把握しやすく、掲載日時を基準にして、より最近の用例を分析することができる。

- <sup>9</sup> <https://www.youtube.com/watch?v=TCYZJPpxgk> (0:01-1:23) では、用例 (13) の「착하다」と発言している場面の映像を見ることができる。(2022年8月31日閲覧)
- <sup>10</sup> 해운대 달맞이고개 나타난 붉은여우…400km를 이동했다 | SBS 뉴스 (1:10) では、用例 (14) の「착하다」と発言している場面の映像を見ることができる。(2022年8月31日閲覧)
- <sup>11</sup> <https://youtu.be/6BsGsh6IR8E?t=366> (6:06-6:52) では、用例 (23) の「착하다」と「천사」と発言している場面の映像を見ることができる。(2022年8月31日閲覧)

### 【参考文献】

- 河村光雅・金京子 (2017) 『韓国語似ている形容詞・副詞使い分けブック』ベレ出版, pp.212-213.
- 계효하 (2019),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정보 구축과 대조 연구: {아름답다/ 예쁘다/ 곱다/ 착하다/ 美丽/ 漂亮/ 好看/ 善良} 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민정 (2020), 한국어 긍정 성격 형용사 교육 방안-한국어 교재, 어휘집 분석을 중심으로-, 중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영 (2004), 국어 성격 형용사에 대한 연구, 언어과학연구 31, 언어과학회, pp.57-80.
- 김자영 (2019),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성격 형용사 유의어 의미 변별에 대한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철규 (2012), 한국어 형용사 ‘착한’ 의 언어 (collocation) 에 관한 단기 통시적 고찰, 언어과학 제 19 권 4 호, 한국언어과학회, pp.65-87.
- 임지룡 (2009), 다의어의 관점과 의미 확장의 분류 기준, 한국어 의미학 28, 한국어의미학회, pp.193-226.
- 임지룡 (2014), ‘착하다’ 의 의미 확장 양상과 의의, 언어 39-4, 한국언어학회, pp.971-996.
- 전부미 (2014), ‘착한’ 의 언어현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접근, 언어연구 30-2, 한국현대언어학회, pp.439-458.
- 정현정 (2020), 한국어 성격 형용사 교수·학습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항범 (2012), 현대국어의 의미 변화에 대하여 (2): 형용사, 동사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81, 한국언어문학회, pp.85-112.
- 천혜정 (2019), ‘착한’ 기업의 ‘착한’ 상품을 ‘착하게’ 소비하기 -조선일보 기사에 나타난 ‘착한’ 의 의미와 활용방식 분석-, 미디어, 젠더 & 문화 34 권 1 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pp.255-307.
- XIA WAN (2022),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착하다’ 의 교육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 22 권 8 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pp.385-399.

# An Attempt to Describe the Usage of the Adjective “착하다 (*chakhada*)” in the Meaning of Positively Evaluating Personality or Behavior

Midori Kamei

## Abstract

As part of the study of adjectives for Korean language learners, this paper considered the usage of the word “착하다” used when praising a person’s character or behavior, which is difficult to understand by only reading the definitions and example sentences in the dictionary. A total of 2,422 examples in articles from the Korean News Database System BIG KIND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착하다” is used when, directly or indirectly, (1) praising someone who can speak or act with consideration for other people, (2) praising someone who volunteers or donates, or (3) praising juniors or young obedient people.

2) “착하다” is sometimes used as an interjection for praising someone when the speaker is impressed or satisfied with his/her actions.

3) A person who is praised using the word “착하다” is sometimes compared to an “angel.”

Keywords: Korean language learning, vocabulary acquisition, dictionary, usage, situation.